

장성 흥길동 테마파크 인기

활터·민속마을 등 관광객 매달 6천여명 찾아

장성군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실존 인물로 재탄생시킨 흥길동이 새로운 관광아이템으로 부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흥길동 테마파크에 매달 6천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흥길동테마파크는 흥길동 생가와 청소년수련원, 활터, 민속마을 등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복합적인 관광테마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특히 최근 흥길동을 주제로 한 만

화와 애니메이션이 제작 방영된 점이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흥길동테마파크는 1998년 연세대학교 고증을 거쳐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3만㎡ 부지에 515여원이 투입돼 문화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2011년까지 조선시대 청백리인 아곡(菽谷) 박수량(朴守良) 선생이 명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청백당을 비롯해 15세기 당시 시장을 재현한 난장

과 청소년 수련장, 국공장, 트레킹 코스 등이 조성된다.

흥길동테마파크는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필암서원과 축령산 휴양림, 금곡 영화촌 등 주변 관광지와의 가까워 관광벨트로 개발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장성군은 관광객들을 위해 흥길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을 상주시키고 관람료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장성=류종현기자 vjs52@

농특산물 팔고 이미지 올리고

강진군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도·농 자매결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각 읍면과 실과별로 30여곳이 도시지역과의 결연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인적·문화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진군도·농 결연 경제 활성화 도움

강진읍과 결연한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부녀회 회원들은 지난 7일 강진을 방문, 농촌 체험과 함께 단감, 참다래, 콩 등 수백만원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했다.

또 서울 도봉구 창2동 부녀회가 병영면 하고리 단감마을을 찾아 농촌체험을 했으며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직원들은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경기지부 회원들과 함께 성전면 달마지마을에서 농촌체험을 하고 농산물도 구입했다. 특히 여성정치연합 경기지부는 군에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칠량면이 광주 남구 봉선2동과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식용 국화 따 가세요” 합평에서 열리고 있는 ‘2008 대한민국 국화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차를 만들기 위해 국화꽃을 따고 있다. 신광면 국화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1천800㎡의 국화밭에 마련한 ‘식용 국화 따기 체험장’은 관람객들이 3천원을 내면 봉지 한가득 국화꽃을 따 갈 수 있다. <합평군 제공>

완도 수산고 “美 ‘선진 해양’ 배우고 왔어요”

8박 9일간 수산 교류 교육

완도 수산고등학교(교장 박채순)가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8박 9일간 미국 수산교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교육은 미국 캘리포니아 ‘씨 그랜트’(Sea Grant) 사업단 초청으로 완도 수산고 이명순 교사와 여학생 2명을 비롯해 전남대·군산대 대학생 등 12명이 참가했다.

방문단은 미국 샌디에이고 엠바레이 해양 연구소와 캘리포니아 문테레이 아쿠아리움 등을 견학하고 세미나에 참석, 미국의 선진 해양 관련기술과 연구내용 등을 연수했다. <사진>

완도 수산고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 나가사키 수산고, 중국 위해수산고, 미국 브릿지포트 수산고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도 수산고는 이같은 국제교류 교육 결과 해양전



문계 교교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때 정원 미달 상태에서 3년 전부터 특성화 전문 명문고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학교동문과 지역사회 등이 힘을 합쳐 완도 수산고를 비전 있는 인재육성 명문고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영광군 지역개발 1조2천억 투입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94개 사업 발표

영광군이 오는 2020년까지 지역개발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영광군은 17일 서해안·해양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워터파크 리조트 건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는 35개 전략과제와 9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2020년까지 자체 예산 4천420억원과 민간자본 4천300억원에 국비 2천470억원과 도비 950억원 등 1조2천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우선 아름다운 해안선과 노을을 활용해 백수해안도로 정비 및 노선 개량, 칠산대교 경관 조성, 가마미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 각종 전망대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해안 관광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낙월도와 안마도에 낚시공원과 연도(連島)교를 건설하고 해수욕장과 갯벌생태 체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불갑저수지 주변에는 워터파크 리조트와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인 ‘아트빌리지’를 건설하고 상사화 군락지 및 불갑산 휴양림과 연계 개발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지방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웰빙 농·어업을 중점 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의 몇몇 분야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재정리한 내용인 데다 전남의 다른 지자체와 겹치거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비·도비 지원을 건의하거나 원전지원사업비를 신청할 때 이를 활용,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암 동구리리 일대

전통마을 숲으로 복원

영암군 군서면 동구리리 일대가 전통 마을 숲으로 복원된다. 영암군은 전통 마을 숲이 파괴되고 농촌의 노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서깊은 동구리리 마을 숲이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복원 사업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달 산림청이 시행한 전통마을 숲 복원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영암군은 마을 숲 복원 사업지로 선정돼 받은 2억원으로 내년에 훼손된 소나무숲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영암군 임도 평가 3년 연속 우수상

사업비 2억5천만원 받아

영암군이 임도(林道)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은 최근 전남도가 보내 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임도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 3년 연속 수상과 함께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 화산면 화계지구 임도 신설사업과 신북 용산~명동지구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면정리와 조경식

쌓기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임도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악자전거와 등산 등 다양한 레포츠활동이 가능토록 시공하고, 동물이용통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임도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김재성 영암군 산림축산과장은 “임도 설계시 산림경영이나 산물 등 산림분야뿐 아니라 관광휴양, 산악레포츠, 등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이 3년 연속 수상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담양군 2억여원 들여

추월산 등산로 정비

담양 추월산 등산로가 새롭게 단장된다. 담양군은 전남도 보조금 2억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들여 연말부터 추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훼손된 등산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안내관, 안전시설, 생태관찰로 등 등산객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군은 인공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경관 보전과 산림 생태 안정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시공할 방침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합평 손불면 ‘꿈이룸 아동센터’

토공 ‘집수리 사업’ 새 단장

합평군 손불면 ‘꿈이룸 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단장됐다. 한국토지공사는 맞춤형 집수리사업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지난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지역 아동센터는 그동안 건물과 화장실, 목욕실, 주변환경 등 기초시설이 열악해 불편을 겪어왔으나 토지공사로부터 1천500만원을 지원받아 1개월여의 공사를 거쳐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손불면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 초·중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숙제지도와 특별학습을



실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촌 아이들의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배세진(손불서초 2년) 학생은 “여름에 해수욕하며 뛰어놀다 씻으려면 아동센터 공간이 너무 비좁고 불편했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8화 송대관	20목21금 최진희	25화 박현빈	27목28금 김수희	4목5금 설운도
-------------------	----------------------	-------------------	----------------------	--------------------

호박 나이트 OPEN **동**
광주첨단·폭스존엄